

“이제 나는 누구보다도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해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유소영 양(서울S국교6년, 14세). 그녀는 왜 자신의 건강이 그렇게 나빠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건강이 좋아지면 언젠가는 훌륭한 등반가가 되리라는 꿈을 키우며 살아왔다.

그녀는 양호선생님의 권유로 '86년, 건협서울특별시지부에서 심전도검사를 받고 심장이상을 발견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심장병



건강합니다.”

받고 건강을 되찾은 유소영 양

수술을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1년여를 그냥 지내야만 했던 유양은 마침내 주위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이제 건강을 회복했다.

여류 등반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하루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소영 양의 건강한 모습에서 어린이심장검진의 필요성을 새삼 느낀다.

마음껏 뛰고 싶었던 어린시절

『무엇보다도 등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뻐요. 제 꿈은 멋진 여자 등반가가 되는거였거든요.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거예요.』

건강해 보이는 모습의 소영양은 얼굴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그 모습 어디에서도 내성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너무 말이 없고 외곶이였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등산을 하면서 차츰 성격도 밝아지더군요.』 라는 소영양의 아버지 유영수씨(42세, 상업)는 여러가지로 돌보아 준 주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개까지 숙여보였다.

어릴 때부터 몸이 유난히 약했던 소영양은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 놀수가 없었다. 쉽게 차오르는 숨, 현기증, 납담함 등등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어떤 아픔같은 것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차츰 외톨이가 되어갔고 성격도 내성적이 되어갔다.

『옆에서 보기에도 애처로울 정도로 책만 들여다봤어요. 덕분에 공부는 잘했지만 건강하게 뛰노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저희로서만 그저 가슴만 아파하고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운동만 빼 놓고
무엇이든지 잘했지
만 소영양은 그것
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소영양의 어머니 강정숙씨(40세)는 이렇게 말하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보약 한첩 먹일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외롭기만 했어요. 운동만 빼고 뭐든지 남보다 앞서갔지만 그게 기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기하기 시작했어요. 꽃, 나무, 하늘……. 산을 좋아하게 된 것도 2학년 때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요. 공부하다 창밖으로 내다보인 산이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라는 소영양은 그때부터 산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언젠가는 꼭 산의 정상에 오르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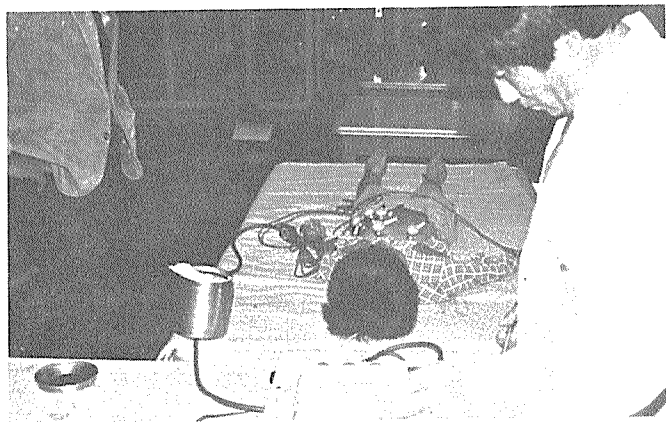
양호 선생님의 권유로 찾아온 건강관리협회

건강 때문인지,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감성을 지녔던 그녀가 건협을 찾게 된 것은 '86년이 저물어가는 12월의 일이었다고 한다.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서 항상 기운이 없고 창백한 소영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양호선생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혹시 심장병이 아닐까 싶다면서 건강관리협회를 찾아가 보도록 권하시더군요. 처음엔 경제적 이유 때문에도 그랬고 가려면 병원엘 가지 하는 생각에 거절했습니다. 또, 특별히 어디가 나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다고만 생각하기도 했구요.』

그러나 소영양의 부모는 양호선생님의 설명-협회에 대한-을 듣고는 찾아가 보기로 결심을 바꿨다고 말한다.

『선생님께서서는 심장병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별한 증상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 “검사결과, 소영이가 몸이 약한 이유는 알았지만,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협회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볼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마침내 소영양은 방학을 이용해 부모님과 함께 건협 서울지부를 찾아왔다.

『우선은 관리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소영이의 생활에서 부터 건강상태까지 모두 들으시고 몇가지 질문을 하셨던 선생님께서도 학교의 양호선생님과 똑같이 심전도를 찍어보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유영수는 당시의 일을 설명한다.

심장에 이상, 재검사를……

짧은 순간의 검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유씨의 마음은 공연스런(?) 걱정에 어지러웠지만, 소영이가 왜 그렇게 몸이 약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한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들은 소영양의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결과서에는 심장에 이상이 있으니 재검사를 받도록 하라는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 바로 협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하고 심전도를 다시 찍어봤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였죠. 선생님께서는 종합병원을 찾아가 정밀검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했지만……

소영양의 가족은, 소영양의 병명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으나 만일 수술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협회의 소개로 종합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결과는 심장판막증이라더군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두면 더 악화되어 살수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몇백만원이나 되는 수술비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라며 강정숙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 주위의 도움으로 마침내 소영양은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주위의 도움으로 마침내 수술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소영양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세월을 보내야 했다. 부모님들의 안타까움은 이루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어린이 심장병치료를 위해 세워진 곳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찾아가 봤지만 소영양이 그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은 찾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가능한한 자주 병원엘 찾아가서 상태를 점검하면서 소영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건협에서 검사를 받은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소영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노력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소영양의 딱한 사정을 들은 소영양의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그들의 성의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부터도 격려의 뜻을 담은 편지와 수술비에 보태라면서 돈을 보내 주었다고 말하면서 유씨는 그때만큼 주위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모인 돈에 약간의 빚을 보탠 유씨는 부족한 부분을 병원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마침내 소영양의 수술을 가능하게 했다. '87년 10월의 일이었다.

『그땐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우리 소영이가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뿐이었어요.』라고 어머니 강씨는 말한다.



◀그렇게도 오르고 싶었던 산. 이제 그녀는 여류 등반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젠 산에도 오를 수 있어요

『전 그냥 눈물이 났어요. 수술받기 전날 산에 오르는 꿈을 꿨거든요. 정말 수술만 하면 저도 산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라며 소영양은 어른스런 표정을 짓는다.

12시간이 넘는 수술이 마침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 소영양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다.

수술은 성공이었고, 꽤 오랜 회복기간을 지나야 했지만, 곧 다가올 방학엔 산을 오르리라는 생각에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시간은 오히려 짧다고 느껴졌다고 소영양은 말한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소영이 같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소영이도 더 어릴 때 발견했으면 이토록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을 듣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시오.』 유영수의 마지막 말이다.

돌아오는 일요일의 치악산행 계획을 짜는 소영양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서면서, 하루빨리 소아심장집단검진이 정착되어야 함을 새삼 느꼈다.